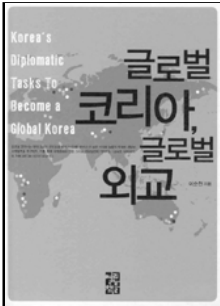


■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



(이순천 저, 열린책들, 265쪽)

지난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

로 탈바꿈한 한국에서 열린 금번 회의를 두고 전 세계 주요 외신과 석학은 큰 관심을 보이면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떠오른 한국의 위상에 대해 대서 특필했다.

“이제 한국은 예전의 한국이 아니다.”

세계 속의 중심 국가로 성장하였고 세계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나라다. 국제사회가 한국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무대에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주목하고 있는 이 때에 이순천 전 외교안보연구원장이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를 출간하였다.

이 대사는 30여 년간 외교통상부의 주요 간부와 공관장으로 활동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2년 4개월간 외교안보연구원장 재직시 발표한 외교·안보관련 논문, 언론기고, 칼럼과 주요이슈에 관한 인터뷰와 좌담회 내용 등을 정선하여 발간하였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여러 외교과제와 현안, 정책과 방향 등에 관하여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했던 여러 이슈

들은 현재에도 계속되는 우리외교의 과제 및 방향이기에 이를 다시 되돌아보고 재 점검하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글로벌 코리아, 글로벌 외교, 제2장은 글로벌 외교의 현안과 과제, 제3장은 외교, 안보관련 언론 인터뷰 및 좌담회, 마지막 장은 국제법 논문(국·영문) 및 기타 영문칼럼을 기 발표한 대로 영어로 게재하였다.

저자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전과 국제공조 중요성, 국제환경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우리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성숙한 세계국가’ 즉 ‘글로벌 코리아’를 국정지표로 설정하고 창조적인 실용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변 4강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세계 각국과 우호관계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미국과는 양국관계를 ‘21세기 전략동맹’으로 전환시켜 한·미동맹의 근간을 이루고 북핵문제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켜 나가는데 굳건한 토대가 되었다. 더욱이 양국간 FTA를 체결함으로써 외교·안보차원의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동맹관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게 되었다.

일본과는 금년에 한·일 강제병합 1백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일본총리의 사죄 담화문 발표를 이끌어 냄으로써 불

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미래지향적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키는데 진일보하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함으로써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였고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력을 모색해 나가게 되었다.

또한 동남아시아를 우리외교의 중심축 중 하나로 하는 ‘신 아시아외교’를 전개하여 아시아 중시 외교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번영의 동반자’로 삼았으며, EU, 서남아,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각국과 다방면에 걸쳐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협력 외교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전 세계를 향한 전방위외교, 글로벌외교를 전개하였다.

저자는 이제 우리나라가 “시야를 보다 넓혀 ‘성숙한 세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외연을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세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하고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안정, 공동발전에 기여하는 세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먼저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과 경제·통상 선진화를 위한 실용외교를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G20 의장단으로 참여하여 다자외교 무대에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였다.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중재적이고 조정적인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한국은 새로운 금융질서 구축의 새

장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G20과 비G20국가들 간의 가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우리정부는 또한 과감한 개방과 진취적 교류·협력을 통해 ‘선진형 통상국가’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FTA 추진정책은 이런 목표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저자는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에 뒤늦게 참여하였으나 현재 19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주요교역 상대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성공적인 FTA 체결은 주요 공업국가 가운데 한국이 처음이며 우리가 경제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밑거름 될 것이다. 저자는 “적극적인 통상협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 시장개방과 자유화는 국가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이끌고 ‘글로벌 경제외교’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더 나아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글로벌 거버넌스’ 외교의 일환으로 적극 실행해 나감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논의에 부응하고, 부존자원 없이도 세계를 선도하는 녹색기술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선진국 경제모델’로 질적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

저자는 또한 한국이 ‘글로벌 코리아’라는 국정지표에 부응하며 국력에 걸맞게 ‘기여외교’를 전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원조 공여국으로서 세계

의 빈곤 퇴치와 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무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임에 비추어 OECD회원국 평균의 1/3 수준인 공적개발원조(ODA)규모를 대폭 확대이행하고 수원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한국형 원조모델을 개척, 정착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또한 유엔의 각종 평화유지 활동(PKO) 및 개발구조 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국가의 위상을 감안하여 병력 규모와 활동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을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서 국가브랜드화해 한국이 전 세계적 문제에 기여하는 국가임을 해외에 널리 알리고 우리 문화예술의 국제적 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우리의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보다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의 격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외교의 일환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총력외교’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외교관의 외교역량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외교관 인력의 충원, 교육 등 인사관리제도의 개선과 조직의 확대, 정비 그리고 외교역량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증액을 제시한다. 나아가 외교관

의 자질과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선발 제도로써 외교아카데미제도를 도입하여 ‘뽑는 외교관’에서 ‘길러내는 외교관’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개선을 마련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외에도 북핵문제 대응방안과 2012년에 개최 예정인 핵안보 정상회의의 의의 및 대책, 통일외교 방향 그리고 국제법 학자로서의 전문적인 견해를 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보스니아 제노사이드 판결 및 평가, 최근 일본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분쟁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국제법 논문 및 칼럼(영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외교·안보 교육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 토론, 발표하고 국제적인 관심사항을 파악, 분석, 제공하며 한국이 직면한 외교현안의 해결 방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 제시하고 있다. 그 속에는 한국이 국력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선진 외교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성숙한 외교관’으로서의 고뇌와 열정이 담겨있다.

이 책이 외교현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데 귀한 자료로 활용되고 국민들이 한국외교의 현안과 미래를 이해하고 성원하며 후배 외교관들에게 소중한 지침이 되는 값진 참고서가 되기를 바란다. (편집실-문병록) **외교**